

현지정 문화재(유형/조각)

1993년 2월 26일 지정

소유자 쇼엔지 절

목조오지여래좌상

대일여래는 태양의 빛을 능가하는 지혜의 광명을 지닌 부처라는 뜻으로, 밀교에서는 최고 지상의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지혜'를 나타내는 오지여래는 대일의 자비를 설파하는 태장계, 지혜를 설파하는 금강계의 양계에 있으며,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오불로 구성됩니다. 태장계와 금강계에서는 대일여래와 다른 4구의 여래 구성이 각각 다릅니다.

쇼엔지 절의 오불은 태장오지여래로 중앙에는 대일여래를 두고, 동방에 보당여래, 남방에 개부화왕여래, 서방에 무량수여래, 북방에 천고뢰음여래의 4여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질이나 구조, 작풍으로 보아 원래 하나의 태장오불로서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대일여래상의 높이는 59cm, 다른 4구의 여래상 높이는 41cm 전후입니다. 대일여래와 여래 3구는 비자나무를 목재로 한 단일 목조로 양 다리부를 접합하여 만들었으며, 여래 중 1구는 후세에 보수된 것입니다. 여래상은 모두 둥그스런 몸집으로, 풍부한 양감을 유지하며, 조각은 얇고, 둥근 얼굴이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구조로 보아 10세기말에서 11세기(헤이안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태장오지여래상은 유례가 적으며, 특히 헤이안시대에 제작된 상이 현존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희귀합니다.

또 쇼엔지 절은 메이지 41(1908)년에 쇼가쿠지 절(현 니시후나 2초메)과 엔메이인(현 쇼엔지 절의 땅)이 합병하여 성립된 사찰로, 오지여래좌상은 쇼가쿠지 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불상이 니시후나 땅에 전해지고 있음은 특필할만 합니다.

2019년 3월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